

## 제지연합회, 제지업계 B2B 실적보고서 발표

제지분야 e-마켓 PMP(Paper Market Place)의 운영주체인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조동길)는 지난 1월5일 '제지업종 B2B 실적보고서'를 발표, 2006년 제지업계B2B사업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PMP에 가입해 있는 업체가 2004년 112개 업체에서 2005년 336개사로 3배 이상 꾸준히 늘었다. 조운식 한국제지공업연합회 B2B사업팀장은 "현재 회원승인돼 사용중인 회원사가 336개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등록된 회원사는 12월말 기준으로 496개 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B2B사업에서 가입 회원수는 전자거래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보고서는 2004년과 2005년의 월별 전자거래량과 전자결제량을 비교하면서 2005년 총전자거래량이 7636억원에 이르며, 전자결제도 총 2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2005년 12월 전자거래금액은 596억원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156% 증가했고, 전자결제금액은 44억원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4072% 늘었다. 이는 '전자보증의 발급과 결제이용 업체의 증가'와 '제지 중개형 MP 오픈'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월17일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08년까지 신용보증기금 6조7천억원의 지원 계획을 밝혀, 제지연합회는 B2B사업이 제지업계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솔제지, 2006년 시무식 개최

한솔제지는 지난 1월2일 한솔빌딩 8층에서 2006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에서 선우영석 부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병술년 새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힌 후 "고객행복이 기업행복으로, 기업행복이 자아행복까지 연결된다는 마음으로 2006년에는 고객행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명원 주임 외 총 34명 등의 한솔제지 본사, 공장 모범 사원들에 대한 한솔제지 대표이사 표창 수여식도 치러졌다.

## 한솔제지, 일일호프 행사 및 성금 모금

한솔제지가 여사원들의 모임인 디딤돌이 주최한 '결손가정 돕기 일일호프 행사'를 갖고 기금을



만드는 한편, 한솔그룹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펼쳤다.

지난해 12월22일, 한솔제지 여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일일호프 행사에서는 바자회물품판매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조성했으며 지난 12월27일,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과 임직원들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조성, 이웃사랑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한솔그룹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며 "한솔그룹은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각 계열사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솔제지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 2005년에도 바자회, 일일호프 등을 통해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결손가정과 봉사단체 등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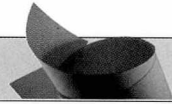
## 한솔제지, 청주 백판지공장 철수

한솔제지가 지방 사업장 정리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 충북 청주공장이 지난 1월말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제지가 청주공장을 철수키로 한 것은 국내 백판지 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장은 연간 8만톤 규모의 백판지와 라이너지를 생산해왔다. 부지는 1만 8176평에 종업원수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약 85명이었다.

## 무림, 신년 시무식 및 임직원 하례식 개최

무림은 지난 1월2일 서울 신사동 사옥 리프레쉬룸에서 본사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2006년 신년 시무식 및 임직원 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김인중 사장은 "새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고, 우리 회사를 혁신하고 우리의 꿈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의 행운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매우 짧고 간결한 내용의 신년사로 2006년의 꿈과 희망을 전달



했다. 이에 직원 대표로 나선 이형근 사원(마케팅팀)과 조영민 사원(회계정보팀)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 및



2006년의 목표달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담은 황금색 복돼지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시무식 직후 열린 임직원 하례식에서는 이동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 한 해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모든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올 한 해의 노력을 당부하며 격려했다.

## 신무림제지, '네오클럽 주니어' 발족

신무림제지는 지난 12월20일 신사동 사옥 근처 남서울웨딩홀에서 '네오 클럽 주니어' 발족식을 가졌다. '네오 클



럽 주니어'는 인쇄 유통사 등 고객사의 출고 및 영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발족한 커뮤니티 모임이다. 영업담당 이규현 전무의 개최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석식 만찬, 레크레이션 등 다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두산인쇄, 우일펄프앤페이퍼 등 고객사 60여 명의 회원들은 이날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는 일촌이에요'처럼 다양한 단체 게임을 통해 서먹함을 없애고 생활용품 등 풍성한 선물을 주고 받았다. 신무림제지는 '네오클럽 주니어'의 활성화와 함께 고객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정기 모임을 개최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다.

## 한국제지, 신년하례회 개최

한국제지는 지난 1월5일 역삼동 소재 중식당에서 임직원과 한국제지 대리점 모임인 한지회 회원을 비롯해 모닝글로리 등의 31개 주요 고객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대리점 시상식이 함께 치러졌다. 최우수 대리점상은 판매량, 안정성, 수익성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세림지업이 차지했으며, 우수 대리점상은 서림지업, 기어도상은 일광지업과 도영

통상, 판매신장을 수상했다. 전원중 한국제지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국제지가



목표대로 PM4를 성공리에 증설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때문이었다"며 "규모와 품질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복사지 하이퍼CC를 비롯한 한국제지 제품들을 널리 홍보하고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규 한지회 회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한국제지의 경영전략과 기업가 정신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 한국제지 시무식 개최

한국제지는 지난 1월2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전원중 대표이



사는 신년사를 통해 "한지인의 저력을 바탕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 한지문화 완성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하며 자율과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 삼원특수지, 해외 그래픽디자인 특별전

삼원특수지는 지난 1월9일부터 오는 2월25일까지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2006 해외 그래픽디자인 인쇄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캘린더, 연례보고서, 작품집 등을 모아 소개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참관객들은 풍성한 디자인아트の世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3월 열리는 'ICOGRADA 아시아 4개국 환경 포스터전'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이 행사를 주최한 삼원특수지는 1990년 문을 열고 '새롭고 수준 높은 종이문화의 창달'이라는 기업이념에 따라 다양한 전시회 및 특별전을 기획, 개최하고 있다. 이 업체는 광고 및 인쇄분야 지류, 문구 및 전문미술분야 지류, 산업용 특수지 및 합성지류 부문 등을 전문으로 한다.